

## 이슬람의 이해 - 1400년을 싸우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

이슬람교 내의 수니파 (Sunni Muslim) 와 시아파 (Shiah Muslim) 의 갈등은 14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서기 600년 초에 무하마드 (마호메트) 는 이슬람교를 일으킨다. 그러나 무하마드 (마호메트) 가 칼리프 ('후계자'라는 뜻) 를 정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분쟁이 일어난다. 시아파는 '씨앗파' 즉 혈통으로 리더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파이고, '수니파'는 능력에 따라 리더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파이다. ('시아파' = '씨앗파' = '혈통' = 'Blood' 는 쉬운 이해를 위하여 만든 말이다) 따라서 '씨앗'으로 이어지는 혈통주의인 '시아파 (씨앗파)'는 당연히 숫자가 많지 않아서 10~15% 정도만 차지하는 소수파이고, 능력에 따라 리더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니파'는, 능력있는 지도자가 많기 때문에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이슬람의 85~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시아파 국가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을 포함하여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이 있으며, 수니파 국가는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하여 중동의 나머지 아랍의 나라를 모두 포함한다. (뒷면에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포 지도를 참조)

능력에 따라 리더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니파'와 혈통에 따라 리더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아파'가 갈라지면서 싸운다. 처음에는 다수인 '수니파'의 주장대로, 능력에 따른 선출직으로 '칼리프' (후계자라는 뜻) 인 '아부 바크르'가 뽑혔다. 그러다가 3대 칼리프가 암살되고, 시아파의 주장대로 무하마드 (마호메트) 의 사위인 '알리'가 칼리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알리'와 그의 가족들은 수니파에 의해 살해되고 만다.

소수인 '시아파'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수인 '수니파'에게 원한을 가지게 된다. 세월이 흘러 700년대의 아바스 왕조, 1500년대 초의 사파위 왕조에서나 시아파가 권력을 잡는 기간이 있었다. 물론 중앙아시아에서 '돌궐족'이라 부르던 '투르크족'이 아랍으로 들어와, 1300년대에 오스만 제국의 황금기를 열며, 수니파와 시아파를 고루 등용하는 시대도 있었다. 그러면서 1900년대까지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은 다소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서양 열강의 아랍 간섭에 의해 수니파와 시아파는 이용당했고, 그 상처가 깊어서 결국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쟁이 다시 터지게 된다.

이슬람에서 정신적 지도자인 '이맘'도, 수니파와 시아파의 두 종파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다. 수니파의 '이맘'은 기독교에서의 목사처럼 자격을 갖추면 예배를 주도할 수 있는 존재이다. 시아파의 '이맘'은 수십 년의 수행기간을 거쳐, 종교적 완성을 이룬 존재를 뜻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훨씬 엄격하다. 그래서 '수니파 이슬람'은 다양한 지역적 관습과 사상도 받아들이는 반면, '시아파 이슬람'은 전통적인 종교원리를 고수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수니파가 온건파이고 시아파가 강경파인데 반해, 이슬람 과격 테러단체인 IS (Islamic State) 는 수니파이면서 강경파이다. 이들은 미국에 의해 강제로 축출된 과거 이라크 정권 (후세인 정권) 지지자가 많다. 이라크 북부의 강경한 IS는 수니파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아파가 강경하고 호전적인 이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를 철권 통치 하면서 미국에 대적하였는데,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 정부이다. 이라크 내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주장하던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였고, 수니파인 후세인 정부를 몰아낸 미국은, 이라크에 과도 정부로 시아파 (씨앗파) 정부를 세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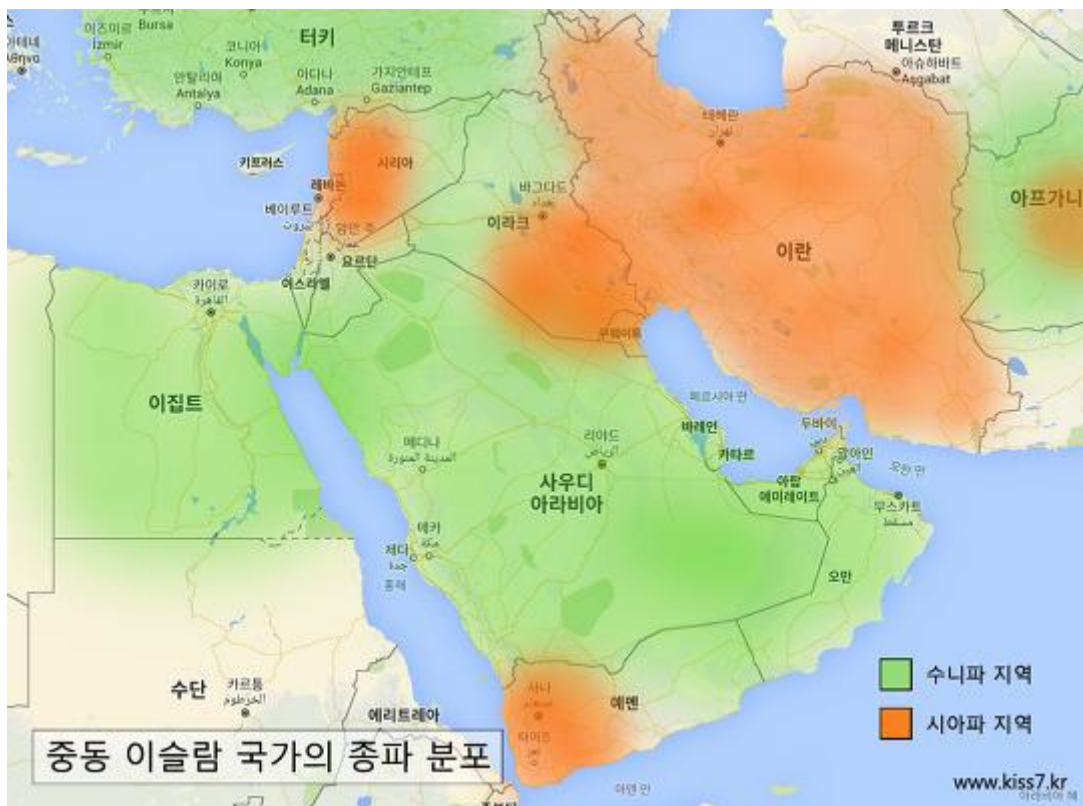
이라크 중심부에 있는 '바그다드'를 포함하여 이라크의 남부 지역은 시아파 (씨앗파) 가 차지한

지역이고, 이라크에서 바그다드 북쪽의 지역은 수니파가 차지 하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의 북동부 지역은 쿠르드족이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족 등 3개로 나누어진 복잡한 종파간의 갈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2011년에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수하자, 바그다드 북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던 수니파가 미국이 세운 시아파 (씨앗파) 과도 정부에 반발하여, 바그다드 바로 북쪽까지 진격하여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라크에 내전이 발생하였다. ‘수니파 정부’인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고, 이라크내 시아파 과도 정부를 보호 하려는 미국과 시아파를 보호하려는 이란 (시아파 종주국) 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오랫동안 끌어왔던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이루어 지면서,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가까워 지고,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미국과의 관계는 현재는 소원해진 상태이다. 수니파의 종주국 사우디 아라비아와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은 페르시아 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지도 참조)

수니파 내의 급진 주의자들이 모여서 IS (Islamic State) 라는 ‘이슬람 국가’를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안에 만들어서, 시아파인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부군과 이라크의 시아파와 싸우고 있다. 그러나 IS 의 잔인함에 질린 수니파 국가들이 IS 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집트, 사우디, 터키, 요르단 등 걸프 지역에 있는 수니파 국가들은, 사실상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을 이스라엘보다 더 큰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가 중동 정세에 개입하여, 시리아의 시아파 정부인 ‘알 아사드’ 정권을 밀고 있다.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 아라비아가 자국내 시아파 지도자 4명 처형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고, 수니파 국가인 바레인, 수단, 파키스탄도 사우디 아라비아를 따라서 이란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선언 하였다. 두 종파간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지역별 분포 지도  
 (연두색 = 수니파 85~90%, 주황색 = 시아파 10~15%)  
 수니파 (능력주의) 종주국 = 사우디 아라비아  
 시아파 (혈통주의) 종주국 = 이란